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4장, 인쇄 49~6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

> ❓ **자신감이 곧 능력인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복이고, 왜 그게 신앙의 첫걸음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첫째 복이 팔복의 맨 앞에 오는 이유에서 출발한다. 심령의 가난은 '비움'이고 나머지 복은 '채움'이므로, 이 복이 모든 복의 열쇠가 된다. 이 복은 동시에 산상설교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무너뜨린다. 그는 먼저 이 복을 물질적 가난으로 읽는 해석을 물리친다. 이어 자신감과 '개성'을 떠받드는 세상과 교회의 풍조가 이 복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다음 심령의 가난을 소심함, 겸손 연기, 개성 억압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하나씩 걷어 낸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에서 바울과 주님에 이르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이 복의 참뜻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가난에 이르는 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첫째 복은 모든 복의 열쇠이자 시험대다

로이드 존스는 첫째 복이 맨 앞에 오는 이유부터 설명한다. 팔복에는 영적·논리적 순서가 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이 첫머리에 온다. 심령의 가난은 '비움'이고 나머지 복은 '채움'이다. 옛 술이 담긴 병에

전에 정죄를 선언한다. 그래서 그는 이 복보다 더 완전한 '믿음에 의한 칭의' 진술은 없다고 말한다. 또 이 복은 산상설교를 새 율법이나 천국을 불러오는 조건으로 보는 견해를 정죄한다. 20세기 초에 유행한 “천국을 가져오자”는 구호가 그런 견해였다. 산상설교는 혼자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산이며, 스스로 오르려는 시도는 그 산의 높이를 모른다는 증거일 뿐이다.

1. 팔복에는 영적·논리적 순서가 있다
2. 심령의 가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특징이다
3.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
4. 복음은 해방 전에 정죄부터 선언한다
5. 산상설교는 즉시 실천할 '프로그램'이 아니다

> **마태복음 5:3**
>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의 것이라는 첫 관문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누가복음 2:34**
> 복음은 먼저 넘어뜨리고 나서 일으킨다는 원리
>
>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 2.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영'의 가난이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 로이드 존스는 해석 문제부터 다룬다.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만큼 하늘나라와 멀 수 있고,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누가복음 6장 문단 전체를 보면 '가난'은 세속 정신에 지배받지 않고 부귀에 기대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실제로 “그것만 있으면” 하며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똑같이 부귀에 의존하고 있다. 그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로마 가톨릭 주석가 다수와 영국 교회 안의 추종자들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프란체스코)를 모범으로 삼아 이 복을 '자발적 가난'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고(故) 고어 주교의 산상설교 해설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로이드 존스는 이를 성경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주님의 관심은 '영', 곧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1. 성경은 가난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2. 가난한 자도 부귀에 의존할 수 있다
3. '자발적 빈궁' 해석은 성경에 어긋난다
4.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다

> **누가복음 6:20**
> 오해의 출처, 그러나 문단 전체로 읽어야 함
>
>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 **누가복음 6:20~26**
> 부귀에 의존하는 정신이 정죄됨을 보여 주는 문맥
>
>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마태복음 5:3

'심령이', 곧 영의 가난을 말한다는 결정적 표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3. 세상과 교회의 '자신감 숭배'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복만큼 그리스도인과 자연인(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 주는 말씀은 없다고 본다. 세상은 자기 신념, 자기표현, 자기 의지를 떠받든다. 문학은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판매 기술의 본질은 자신감이라고 하고, 성공하려면 실제보다 성공한 인상을 풍기라고 한다. 법률로 완전한 사회를, 교육으로 고상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은 '비극적 자신감'에서 나온다. 한 비평가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중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라는 가사를 두고, 고용주 앞에서 그렇게 말할 구직자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다. 로이드 존스의 답은 분명하다. 이 찬송은 사람끼리 마주 선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런데 교회마저 “훌륭한 개성”을 칭찬하며 자신감과 참된 개성을 혼동한다. 어느 위원회가 “개성이 부족하다”고 평한 후보자를 두고, 그는 사실 그 사람이 겸손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사역 광고와 사진이 사람을 내세우는 풍조도 같은 문제다. 바울은 자기를 전하지 않았고,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 떨었으며, 외모가 보잘것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1. 이 복은 세상 정신과 가장 크게 대조된다
2. 하나님 앞의 고백을 사람 앞의 처세로 재지 말라
3. 교회가 자신감을 '개성'으로 착각한다
4. 위대한 일꾼일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았다
5. 교회는 세상 심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4:5

설교자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고린도전서 2:3

능력 있던 바울도 약하고 떨며 섰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10:10

바울은 '큰 개성'의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 4.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오해부터 걷어 낸다. 첫째, 심령의 가난은 소심하거나 수줍어하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다. 팔복의 자질 가운데 타고난 것은 하나도 없다. 둘째,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나오는 우라이어 히프처럼 겸손을 흉내 내는 것도 아니다. 그는 한 도시에 설교하러 갔을 때 겪은 일을 예로 든다. 역에 마중 나온 집사가 그의 가방을 거의 빼앗다시피 들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겸손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런 겸손 연기는 한때 교회의 골칫거리였고, 그 반동으로 목사가 일부러 '번창하는 사업가'처럼 보이려는 반대쪽 극단도 생겼다. 그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차라리 목사 가운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셋째, 개성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바꾸고 공군 사병으로 숨어 산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겸손의 모범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런 자기 지우기는 비성경적이다. 수도사처럼 삶의 책임을 피해 떠나는 것도 같은 유혹이다. 넷째, 지식이 넓을수록 겸손해지는 위대한 학자의 겸손도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광대함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영의 겸손이 아니다.

1. 타고난 내성적 기질은 심령의 가난이 아니다
2. 겸손을 연기하면 겸손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3. 이름을 바꾸고 자기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5. 학자의 지적 겸손과도 다르다

> **마태복음 5:3**
> '심령', 곧 영의 문제이지 겉모습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님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5. 성경 인물과 주님에게서 보는 심령의 가난

긍정적인 정의의 출발점은 이사야 57:15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큰일을 맡자 자기 집이 가장 약하고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 모세도 사명 앞에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다윗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며 놀랐다. 이사야는 환상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베드로는 본래 공격적이고 자신만만한 '현대의 전형적 세속인' 같았지만,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엎드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담대함과 고유한 개성을 잃지 않았고, 훗날 바울을 기꺼이 칭찬했다(베드로후서 3:15~16). 바울은 큰 능력을 지녔지만 평생 자만과 싸웠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물었다. 가장 분명한 본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권리를 붙들지 않으셨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요한복음 5:30) 하시며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셨고, 그 의존은 그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
2. 사명 앞에서 자기의 부적격을 느낀다
3. 베드로처럼 담대함과 겸손은 함께 간다
4. 바울은 능력이 있었기에 자만과 싸웠다
5. 주님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셨다

> **이사야 57:15**
> 심령의 가난을 가장 잘 정의하는 구절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사기 6:15

기드온의 자기 부족 인식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무엘하 7:18

다윗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놀라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사야 6:5

하나님을 본 자의 자기 인식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5:8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엎드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린도후서 2:16

누구보다 자격 있던 바울의 부적격 고백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 권리를 붙들지 않으신 주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10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주님의 전적 의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6.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로이드 존스는 정의를 이렇게 모은다. 심령의 가난은 자만과 자기 의존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며,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철저한 무능의 자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혈통, 가문, 국적, 타고난 기질, 지위, 재능, 학교와 학벌, 지능, 심지어 자신의 도덕성과 선행까지 의지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려 들어 더 큰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사람끼리 경쟁할 때 “나는 저 사람의 호적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는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밧모섬의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적 자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작음과 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죄악성과 불결함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즐겨 생각하는가.

1.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무능의 자각이다
2. 혈통·학벌·재능·도덕성도 의지하지 않는다
3. 사람 사이의 자신감과 하나님 앞의 자세는 다르다
4. 작음만이 아니라 죄악성이 드러난다

[7]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한계시록 1:17

주님을 본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됨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 7.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로이드 존스는 라바터(래베이더)의 찬송 “이 가련한 자아는 쇠하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서 흥하소서”가 이 복을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스스로를 낮추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수도원의 잘못이었다. 수도사들은 사회를 떠나고 몸을 괴롭혔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더 의식하게 되고 심령은 덜 가난해졌다.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과 하나님의 법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피고, 그분 앞에 서 있음을 응시하라. 동시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대로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한 뒤에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한 사도들의 반응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빈손으로 십자가만 붙든다는 찬송 가사로 설교를 맺는다.

1. 자기 성찰과 고행으로는 가난해지지 않는다
2. 자신을 볼수록 자의식만 커진다
3.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응시하라
4.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5.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결론이다

눅가복음 17: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사야 6:5

하나님을 볼 때 자기 실상이 드러남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5:3

이렇게 가난해진 자에게 천국이 주어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내세울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음을 아는 영의 상태다.

믿음에 의한 칭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교리다.

생래적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곧 타고난 기질이나 능력을 말한다.

새 율법

산상설교를 지켜서 구원받거나 천국을 세우는 새 규칙집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이다.

자발적 빈궁

신앙을 위해 일부러 재산을 버리고 가난을 택하는 수도원식 삶이다.

수도원주의

세상을 떠나 금욕과 고행으로 거룩해지려는 신앙 방식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심령의 가난은 팔복의 첫 관문이다. 먼저 비워져야 나머지 복으로 채워진다.
- 이 복은 물질적 가난도, 내성적 기질도, 겸손 연기도, 자기 지우기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영의 상태다.
- 이 복은 자신감을 숭배하는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교회는 그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 심령의 가난에 이르는 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다. 성경 속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
-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